■ 괴운(槐雲) 칼럼

격몽요결의 구용(九容)과 신(新) 명심보감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안동권문의 강령(康寧)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젊은이가 참고 할 율곡선생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나오는 구용(九容)과 노년들이 참고할 인터넷에 떠도는 현대판 신(新) 명심보감에 알아봅니다.

먼저 격몽요결(擊夢要訣)은 율곡 이이(1536-1584) 선생이 1577년 초학자를 위해 저술한 유교적 수신서로 10장으로 구성된 입문교재로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비결이며 인생 가르침이다. 그 가운데 계몽편에 나오는 군자가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그 몸가짐을 가지런히 취해야 하는 아홉가지 자세인 구용(九容)에 대해 알아본다.

1. 足容重(족용중) (不輕擧也 若趨于尊長之前則不可拘此) : 걸음걸이는 무겁게 하라. 즉 걸을 때는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 만약 어른 앞에 갈 경우에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 2. 手容恭(수용공) (手無慢弛 無事則當端拱 不妄動) : 손가짐을 공손히 하라. 손을 공손히 모으고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은 거만하거나 함부로 하지 말고 일이 없을 때는 단정히 모으고 분수없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3. 目容端(목용단) (定其眼睫 視瞻當正 不可流眄邪睇) : 눈가짐은 단정히 하라. 시선을 바르게 하고 흘겨보거나 훔쳐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눈을 똑바로 하고, 흘겨보거나 간사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 4. 口容止(구용지) (非言語飮食之時則口常不動) : 입은 조용히 가지라.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5. 聲容靜(성용정) (當整攝形氣不可出噦咳等雜聲) : 말소리는 조용히 하라. 말을 할 때는 목소리를 차분히 내어 트림을 하거나 잡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재채기나 가래침 등의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頭容直(두용직) (當正頭直身 不可傾回偏倚) : 머리 가짐을 항상 곧게 하라. 머리를 가지런히 하라는 말이다. (머리를 항상 곧게 하고 몸은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비스듬하게 하지 말라) 7. 氣容肅(기용숙) (當調和鼻息 不可使有聲氣) : 숨쉬기를 정숙히 하라. 호흡을 고르게 하고 소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숨쉬기를 잘 조절하여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8. 立容德(입용덕) (中立不倚儼然有德之氣像) : 설 때는 덕스럽게 하라. 서 있을 때는 곧바로 서서 기상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서지 말고 똑바로 서서 덕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 9. 色容莊(색용장) (顔色整齊 無怠慢之氣) : 얼굴 모습은 장엄하게 하라. (얼굴 모습을 정제하여 태만한 기색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현대판 신 명심보감 처세술이다. 원래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추적(秋適)이란 학자가 지은 고전(古典)으로 바른 인격의 형성을 토대로 계선편(繼善篇), 천명편(天命篇), 순명편(順明篇) 등 19편으로 된 것을 후에 효행편(孝行篇), 근학편(勸學篇) 등 5개 편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신 명심보감에서 10가지 한편만 알아본다.

1.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불러도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2. 여자와 말싸움은 무조건 져라. 여자에게는 말로서 이길 수가 없고 혹 이긴다면 그건 소탐대실이다. 3.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기를 게을리하면 어느 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다. 4. 남의 경조사에 갈 때는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가라. 내 차림새는 나를 위한 뽐냄이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다. 5. 더 나이 먹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도전하여 시작해 보라. 일생 중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고 생각하라.

6. 옷은 좋은 옷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해라.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도 살날이 그렇게 많지만 않다. 7.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8.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만하길 다행으로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고, 젊은 사람에게 무시당했다면 그러려니 하고 살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9. 나이 들었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10.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 만나라.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생각을 하자. 오직! 한 번뿐인 인생살이 순간을 소중하고 헐헐하게 만나는 인연마다 귀하게 여기며 온정을 베풀며 살아가자. 이상 언급한 젊은이와 노년들이 참고할 9용과 신 명심보감을 우리 권문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권순긍의 **온고지신**溫故知新

"나는 고발한다(J'Accuse)"

권순긍(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현대사를 바꾼 한 편의 글이 있다. 바로 1898년 1월 13일 발표된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Émile Zola, 1840~1902)의 〈나는 고발한다(J'Accuse)〉라는 글이다. 저 유명한 드레퓌스(Alfred Dreyfus, 1859~1935) 사건을 조작, 은폐한 육군 고위급 인사들을 공화국 대통령에게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다. 도대체 '드레퓌스 사건'에서 졸라의 공개서한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 군(軍)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희생양, 드레퓌스

프랑스 제 3공화정 시기인 1894년, 정보국은 익명의 어떤 장교가 군사기밀을 독일로 유출하려 했다는 중대한 문서(명세서)를 입수했다. 정보국은 곧 간첩행위를 한 장교의 색출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인 드레퓌스 대위를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런데 드레퓌스가 범인으로 지목된 데는 13개의 단어 중에 단지 4개만 필적이 비슷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다만 그가 유대인이며 보불전쟁 이후 독일 땅으로 넘어간 알자스 지방 출신이이라는 이유로 범인이라 지목하여 '마녀재판'처럼 몰고 갔던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프랑스 언론들은 반(反)유대주의 논평을 실어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

결국 드레퓌스는 10월 15일에 체포되어 12월 19일 비밀리에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대위 계급을 박탈당하고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의 '악마의 섬'이라는 악명 높은 범죄자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살도록 선고받았다. 그렇게 묻힐 것 같았던 사건이 뒤집어질 수 있는 전기(轉機)가 마련됐다. 1896년, 정보국장 조르주 피카르(Georges Picquart) 중령은 당시 문서의 필적을 열람하던 중 진범이 드레퓌스가 아니라 페르디낭드 에스테라지(Ferdinand Esterhazy) 소령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메르시에 국방장관은 드레퓌스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없애라 지시했고, 군부는 피카르가 발견한 증거를 무효화하기 위해 위조된 문서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드레퓌스 사건은 영원히 종결된 듯 했다.

| "저는 역사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1898년 1월 13일 에밀 졸라는 '여명(黎明)'이라는 뜻의 『오로르(Aurore)』지에 〈나는 고발한다 (J'Accuse)〉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졸라는 군부가 드레퓌스 사건을 잘못 재판한 사실을 숨기고, 진범인 에스테라지를 풀어주었다고 고발한 것이다. 드레퓌스를 '더러운 유대인 사냥'의 희생자라며 "제 의무는 말하는 것이며, 저는 역사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이 행진하고 있고,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고 강변했다. 졸라는 이 글을 통해 드레퓌스를 유죄로 몰고, 에스테라지를 무죄 석방한 군사법정을 고발하면서 재심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문은 그날만 무려 30만 부가 팔렸다.

이 공개서한을 계기로 드레퓌스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국민들의 주목을 끌었고, 프랑스를 드레퓌스파와 반(反)드레퓌스파의 두 편으로 갈라놓았다. 이제는 사건의 추이가 드레퓌스의 진범 여부보다는 국가와 개인의 문제로 확대되어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재심을 반대하는 반드레퓌스파는 이 논쟁을 국가의 안보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적들이 꾸민 음모라 주장했으며, 드레퓌스파는 이 사건을 군의 명예를 위해 희생된 개인의 인권으로 보았다. 이런 가운데 졸라는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켰다는 죄목으로 1898년 2월 7일 재판에 회부되어 명예훼손죄로 1년간의 징역형과 벌금 3,000프랑을 선고받고 영국으로 망명했다. 그러자 드레퓌스 사건을 재심하라는 탄원서에 약 3,000명이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아나톨 프랑스, 마르셀 프루스트 등 프랑스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군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사건에 반전이 일어났다. 1898년 8월, 드레퓌스 사건의 모의자였던 정보국장 앙리 중령이 자기가 문서를 위조했음을 밝히고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자살했으며, 겁에 질린 에스테라지는 벨기에를 거쳐 런던으로 도망간 것이다.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제 정부와 군은 재심을 요구하는 가족들의 탄원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고등법원의 재심은 1899년 6월 3일에 열렸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참모본부의 상관들은 여전히 위증으로 일관했으며 고등법원은 정상을 참작해 10년형을 선고했다. 7명의 재판관 중 단 2명만이 무죄를 인정한 결과였다.

국내외 여론에 밀린 대통령은 드레퓌스에게 유죄 판결을 인정하는 대신 즉각적인 사면을 제안했고, 5년의 수감 생활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드레퓌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드레퓌스는 일단 이 조치를 받아들였지만 지식인들의 격려에 힘입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만인 1904년 드디어 최고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1906년 7월 12일, 최고재판소는 군사법정의 유죄 판결을 오심으로 파기하고 드레퓌스에게 드디어 무죄를 선고해 그를 복권시켰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귀대 기념식에서 프랑스 정부는 드레퓌스에게 소령 특진과 최고의 명예인 레지옹 도뇌르(Légion d'honneur)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했다. 게다가 무죄를 인정받은 날로부터 120주년이 되는 올해 2026년부터 매년 7월 12일을 '드레퓌스 기념일'로 지정해 그를 기리기로 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가를 알려준다. 더욱이 그것이 국가나 군대와 같은 불가침의 조직일 경우 불행하게도 진실은 영원히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졸라와 같이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의 용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12.3 내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드레퓌스 사건처럼 조작과 은폐의 수렁을 고통스럽게 목도(目睹)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진실이 드러날 때다.

군법회의를 중상 모략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졸라는 최후 진술에서 "제 편으로는 진실과 정의만이 있을 뿐"이라며 "언젠가 프랑스는 자신의 명예를 구해준 데 대해 제게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고 외쳤다. 그 말처럼 졸라는 사후 프랑스 위인들이 안장된 팡테옹(Panthéon)에 묻히게 되었는데, 입구에는 "조국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사의를 표한다(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재안파종회장친목회 제30차 11월 격월 회의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숙동) 제30차 11월 격월 회의가 11월 28일 오후 5시 안동시 평화9길 46-13에 위치하고 있는 '청운한정식'식당에서 회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권기호, 권주연 등 세 고문을 비롯하여 권영건 전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영준 동정공파종회장, 권오춘 전 부정공파종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종회장,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9명이다. 권숙동 친목회 회장과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등 3명은 개인 볼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별다른 토의 안건은 없었으나 1년 동안 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다는 뜻에서 친목회 자체기금으로 사과를 구입, 회원들에게 사과 10kg들이 1상자씩 선물하기로 합의 했다.

내년 1월 격월 회의 때는 임원개선을 하여 친목회 회장을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정식으로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年 1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1.27. ~ 12. 28. 총 납부자 56명 총 3,06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경상(제천) 30,000	권상택(경주) 30,000	권오상(전주) 30,000	권원일(안동) 30,000	권혁기(경주) 30,000
권경식(청주) 30,000	권성진(경기 성남) 30,000	권오수(경기 광주) 30,000	권재형(울산) 30,000	권혁록(안동) 30,000
권광훈(청주) 30,000	권수명(대구) 30,000	권오수(서울 관악) 30,000	권정대(경기 양주) 30,000	권혁벽(안동) 30,000
권구성(홍천) 30,000	권순철(경기 고양) 30,000	권오식(수원) 30,000	권종희(대전) 30,000	권황택(완주) 30,000
권구훈(경주) 30,000	권순팔(안양) 30,000	권오영(봉화) 30,000	권중우(서울 성동) 30,000	권희규(경기 광주) 30,000
권기덕(안동) 30,000	권영구(서울 광진) 30,000	권오주(안동) 30,000	권창택(김포) 30,000	안동권씨 길창군파종중 600,000
권기색(경기 고양) 30,000	권영록(대구) 30,000	권오찬(서울 강남) 30,000	권천수(안동) 30,000	안동권씨 마창진종친회 450,000
권기일(대구) 30,000	권영수(구미) 30,000	권왕희(홍천) 30,000	권태호(부산) 30,000	안동권씨 전주완주종친회 420,000
권기호(울산) 30,000	권영암(경북 군위) 30,000	권용구(태안) 30,000	권태훈(경기 시흥) 30,000	
권길상(강릉) 30,000	권영춘(서울 관악) 30,000	권용만(경기 양평) 30,000	권태훈(서울 영등포) 30,000	
권동식(보령) 30,000	권오길(경주) 30,000	권용욱(경주) 30,000	권택중(음성) 30,000	
권삼달(울산) 30,000	권오복(안산) 30,000	권용하(대구) 30,000	권혁겸(서울 광진) 30,000	

*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삼국시대 백제의 선사유적지 탐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26년 1월 11일(일요일) 11시
♣장 소 : 서울 강동구 석촌고분(백제 선사유적지)
♣교 통 : 전철 9호선 석촌고분역 2번 출구쪽

◈ 연락처
회 장 : 권영복 010-2456-6865
사무국장 : 권순휘 010-3797-1874
총 무 :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57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산악회 제357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6년 1월 18일(일) 10시(시간엄수)
♣ 집합장소 : 서울역 1, 4호선 9-1번 출구
♣ 산 행 지 : 남산 둘레길
♣ 준 비 물 :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6년 1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